

2023년 1분기 충청권 지역경제동향 요약

[지역통계과, 2023. 5. 22.]

- (광공업생산)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.4% 감소
 - 대전(-0.9%)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, 세종(-5.6%), 충북(-11.4%), 충남(-5.8%)은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(건설수주) 토목 부문, 건축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4.3% 감소
 - 대전(-74.4%), 세종(-82.7%), 충북(-39.6%), 충남(-51.7%) 모두 토목 부문, 건축 부문의 부진으로 감소
- (수출) 메모리 반도체,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8.9% 감소
 - 대전(-13.1%)은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및 부품 등이 줄어, 세종(-34.4%)은 인쇄회로 등이 줄어, 충북(-8.0%)은 의약품 등이 줄어, 충남(-35.3%)은 메모리 반도체 등이 줄어 감소
- (수입) 원유, 가스 등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4.8% 감소
 - 대전(5.2%)은 기타 경공업제품 등이 늘어 증가, 세종(-8.1%)은 쌀 등이 줄어, 충북(-5.2%)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 줄어, 충남(-5.6%)은 원유 등이 줄어 감소
- (고용) 충청권 고용률은 전년동분기대비 0.8%p 상승
 - 대전(0.7%p), 세종(1.8%p), 충북(0.4%p), 충남(0.9%p) 모두 상승
- (실업) 충청권 실업률은 전년동분기와 동일
 - 대전(-0.2%p), 세종(-0.2%p)은 하락, 충북은 동일, 충남(0.3%p)은 상승
- (인구이동)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보다 많아 5,555명 순유입
 - 대전(-288명)은 순유출, 세종(1,569명), 충북(485명), 충남(3,789명)은 순유입

2023년 1분기 시도별 지역경제동향 요약

[지역통계과, 2023. 5. 22.]

대전

- 전년동분기대비 서비스업생산(7.5%), 소매판매(7.5%) 수입(5.2%), 소비자물가(4.5%)는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74.4%), 수출(-13.1%), 광공업생산(-0.9%)은 감소
 - 서비스업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호조, 소매판매는 슈퍼마켓·잡화점 및 편의점 등의 호조, 수입은 기타 경공업제품 등이 늘어,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증가
 -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, 토목 부문의 부진, 수출은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및 부품 등이 줄어, 광공업생산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도소매·음식숙박업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 9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60세 이상, 15~29세에서 실업자 감소로 1천 5백명 감소
 - 고용률(0.7%p)은 전년동분기대비 상승, 실업률(-0.2%p)은 하락
- 인구는 20대,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출이 나타나 288명 순유출

세종

- 전년동분기대비 소비자물가(4.4%), 서비스업생산(3.8%), 소매판매(2.7%)는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82.7%), 수출(-34.4%), 수입(-8.1%), 광공업생산(-5.6%)은 감소
 -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, 서비스업생산은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호조, 소매판매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의 호조로 증가
 - 건설수주는 토목 부문, 건축 부문의 부진, 수출은 인쇄회로 등이 줄어, 수입은 쌀 등이 줄어,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 대비 1만 6천 2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전년동분기와 동일
 - 고용률(1.8%p)은 전년동분기대비 상승, 실업률(-0.2%p)은 하락
- 인구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나 1,569명 순유입

충북

- 전년동분기대비 서비스업생산(5.5%), 소비자물가(5.0%), 소매판매(3.1%)는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39.6%), 광공업생산(-11.4%), 수출(-8.0%), 수입(-5.2%)은 감소
 - 서비스업생산은 부동산업 등의 호조,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, 소매판매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등의 호조로 증가
 - 건설수주는 토목 부문, 건축 부문의 부진,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, 수출은 의약품 등이 줄어,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 줄어 감소
- 취업자 수는 도소매·음식숙박업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 1천 9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60세 이상에서 실업자 증가로 3백명 증가
 - 고용률(0.4%p)은 전년동분기대비 상승, 실업률은 전년동분기와 동일
- 인구는 10세 미만, 20대 등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, 50대, 60대 등에서 순유입이 많이 나타나 485명 순유입

충남

- 전년동분기대비 서비스업생산(5.2%), 소비자물가(5.0%), 소매판매(2.2%)는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51.7%), 수출(-35.3%), 광공업생산(-5.8%), 수입(-5.6%)은 감소
 - 서비스업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호조,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, 소매판매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등의 호조로 증가
 - 건설수주는 토목 부문, 건축 부문의 부진,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등이 줄어,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, 수입은 원유 등이 줄어 감소
- 취업자 수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 대비 2만 8천 6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15~29세, 60세 이상에서 실업자 증가로 4천 7백명 증가
 - 고용률(0.9%p), 실업률(0.3%p) 모두 전년동분기대비 상승
- 인구는 20대,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나 3,789명 순유입